

구멍없는 피리 불고 줄없는 거문고 탄도인

경허 스님 수행 일화 ②·③

한번 앉아서 일을 마치다

계룡산 동학사에서 젊고 유능한 강사로 명망이 높은 경허 스님에게 수학하려고 밀려드는 학인들의 수는 나날이 많아져 갔다.

하지만 발심한 경허 스님은 강사를 그만두고 조용한 수도처를 찾았다. 이는 생사의 무상함을 깊이 느껴 장부의 대사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동학사에서 주장자와 발우를 거둔 뒤 스님이 찾은 수행처는 홍주 내포였다. 오늘날 충남 서산군 연암산에 있는 천장암(天藏庵)이다.

바람을 풀고, 경허 스님은 마음껏 용맹 정진했다. 천장암은 학인·신도 등 누구도 찾지 않는 조용한 암자로 정진하기에는 다시 없는 곳이었다.

천장암서 누더기 입고 1년 장좌불와

숨쉬는 등신불 같던 용맹정진 끝에

심신 습기 조복받아 생사자재

행함 없고 한가로운 오도가 불려

경허 스님의 수행은 철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님은 일반인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치열하게 수행했다. 스님은 숨을 닦대어 지은 누더기 한 벌을 입고 꼬박 1년 동안 장좌불와를 했다. 공양을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일 이외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선한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세수나 양치, 목욕하는 일까지 돌보지 않고 언제나 오직 앉아 있을 뿐이었다. 잠을 자기 위해 눕거나 벽에 기대는 일도 전혀 없었다. 숨쉬는 등신불과 같아 때로는 사람들이 절에 와 소란을 피워드 경계에 마음졸림이 없었다.

스님이 1년간 면벽하는 동안 몸도 썩지 않고 웃도 갈아입지 않아 땀에 찌든 누더기 옷과 머리에는 싸

락눈이 내린 것처럼 이가 들끓었다. 이가 너무나 많아 마치 두부를 짠 비지를 온몸에 문질러 놓은 것처럼 허열계 될 정도였다.

보다 못해 사람들이 새 옷을 수행방 밖에 가져다 놓고 '스님, 제발 옷 좀 갈아입으세요'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스님은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경허 스님은 철저한 용맹 정진 속에서 안으로 일어나는 번뇌의 습성과 밖에서 오는 유혹의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과 몸의 습기(習氣)를 조복 받았다. 스님은 생사에 자재 할 수 있는 경계에서 수행을 계속했다.

이와 같은 정진을 계속해 1년을 채운 날 경허 스님은 주장자를 문 밖에 내 던지고 입었던 옷을 활짝 벗어 던지며 쾌활한 노래를 불렀다.

다음은 경허 스님의 오도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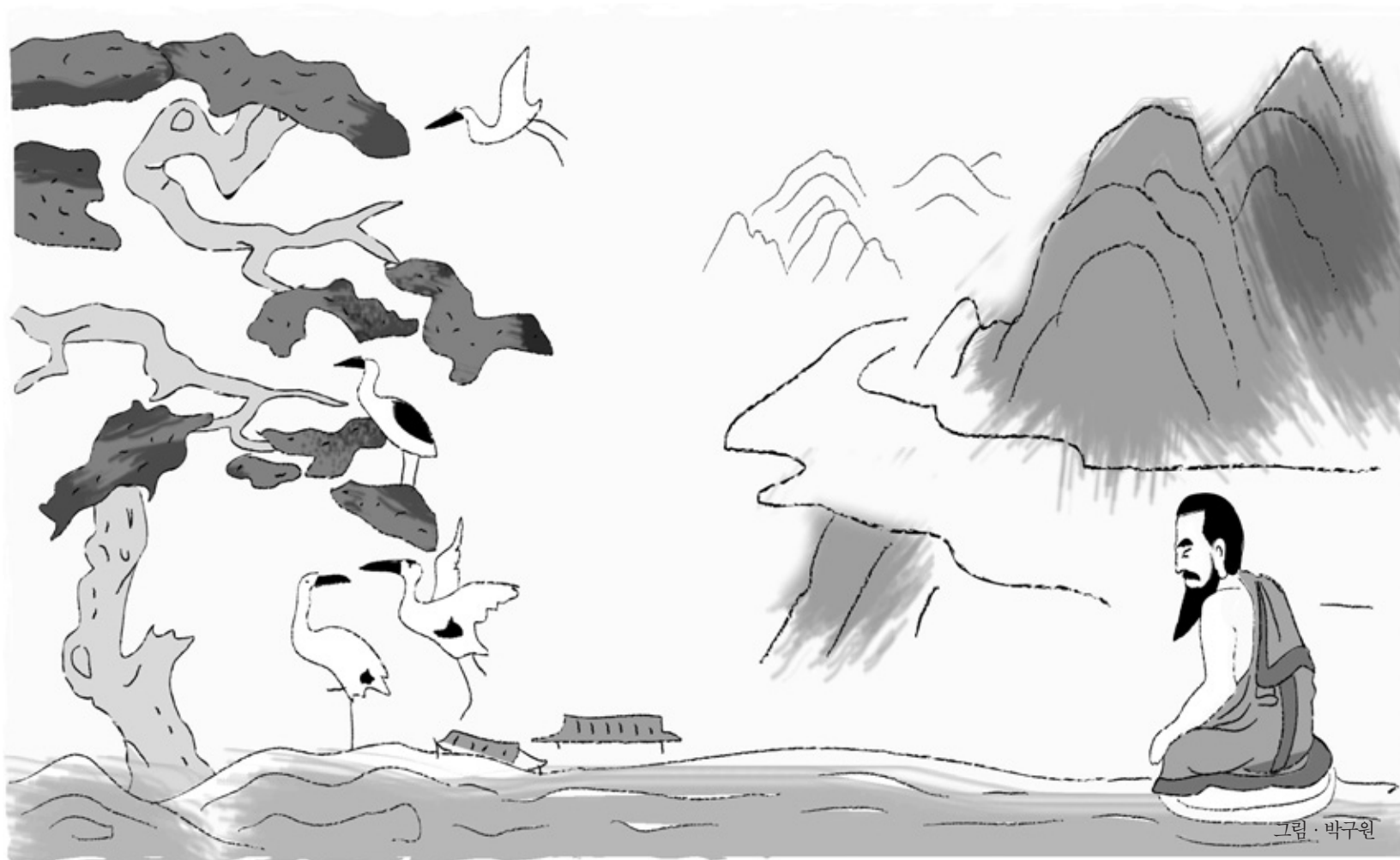
忽聞人語無鼻孔(홀문언어무비공)
頓覺三千是我家(돈각삼천시아가)
六月燕巖山下路(유월연암산하로)
野人無事太平歌(야인무사태평가)

홀연히 사람에게서 고삐 풀을 구멍 없다는 말 듣고 삼천 대천 세계가 이 내 집임을 몰록 깨달았네
유월 연암산 아랫길에 들 사람 일이 없어 태평가를 부르네

확실대오한 경허 스님은 천장암에서 유유자적하며 낮에는 맑은 바람과 사귀고 밤에는 밝은 달과 벗하였다. 스님은 때로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고 때로는 줄 없는 거문고를 타면서 무심삼매(無心三昧)에 든 일 없는 사람이었다. 또 행함이 없는 참사람이며 한가로운 도인이었다.

깨우친 경허 스님에 대한 일화다. 어느날 밤 만공 스님이 큰 방에 불 일이 있어 호롱불을 들고 들어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큰 뱀 한 마리가 경허 스님의 배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공 스님이 "스님 배 위에 뱀이 걸쳐 있습니다"고 말하자 경허 스님은 놀라지도 않고 그대로 누운 채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실컷 나와 놀다 가도록 내버려두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림·박구원

찌그러진 그릇 찌그러진대로 반듯

만공 스님이 도암(道巖·만공 스님 속명) 행자로 처음 출가 입산해 동학사에서 전암 스님을 모실 때의 일이었다.

어느 날 석양의 해 그림자가 어두워질 무렵 큰 방 앞 마루에서 주장자 놓는 소리와 함께 앞문이 열리면서 우렁찬 목소리로 "객 문안 드립니다"하고 들어서는 스님이 있었다.

구척 장신의 거구 경허 스님이었다. 그날 동학사에서는 아간 법회가 있었다. 동학사

동학사 법회서 강주 스님이

"곧은 나무라야 쓸모 있다" 하자

경허 스님 법석 올라 말하기를

"뻘뻘 것은 뻘뻘 대로 곧은 것"

강주(講主) 스님이 "나무도 뻘뻘어지지 않고 곧아야 쓸모가 있고, 그릇도 찌그러지지 않는 그릇이어야 쓸모가 있다. 사람도 마음이 불량하지 말고 착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설법을 통해 학인들의 정진을 당

부하고 있었다.

이어 경허 스님이 법석에 올라 설법했다. "강주 스님이 말씀하기를 '반듯하고 정직해야 한다'고 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대중은 의아했다. 그도 잠시 경허 스님이 말을 이었다.

"뻘뻘어진 나무는 뻘뻘어진 대로 곧고 찌그러진 그릇은 찌그러진 대로 반듯하며,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 사람은 그대로 착하고 성실함이 있느니라."

행자였던 만공 스님의 마음에 경허 스님의 말씀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때부터 만공 스님은 경허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됐다고 전한다.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능인로즈마리·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으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능인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각 ₩ 15,000원 규격: 약 14cm(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약 170g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 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샵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현불샵 02)2004-8215 전 5권 전집 | 금장 | 최고급양장케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색 80그램 | 율케이스 | 전집2도 인쇄